

전소민 "유재석이 샤넬 지갑 선물...고생했다고 줘"

등록 2026.02.03 09:33:15



[서울=뉴시스] 배우 전소민이 지난 2일 방송한 SBS TV 예능 프로그램 '아니 근데 진짜'에 게스트로 출연했다. (사진=SBS '아니 근데 진짜' 캡처) 2026.02.0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신지아 인턴 기자 = 배우 전소민이 코미디언 유재석이 준 명품 지갑 선물에 감동했다고 말했다.

그는 지난 2일 방송한 SBS TV 예능 프로그램 '아니 근데 진짜'에 게스트로 출연했다.

이상민이 "이 지갑 주인이 누구냐"고 하자 전소민은 "제 거"라고 답했다.

탁재훈은 "명품 자랑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"고 말했다.

전소민은 "제가 명품이 많지 않다"며 "옛날에 처음 돈 벌었을 때 몇 개 산 정도"라고 했다.

그는 "이건 제 인생 첫 샤넬이고 선물 받았다. '식스센스' 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재석 오라버니가 고생했다고 멤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줬다"고 말했다.

전소민은 "그때 받은 건데 5~6년째 잘 쓰고 있다"고 했다.

카이는 "우리도 기대해도 되겠다"며 웃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ja29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